

고소설의 검열본과 납본에 대한 연구*

- 검열본과 납본의 현황, 검열의 실태, 검열의 특징과 의미 -

A Study on the Korean Old Novels' Censored text and Legal Deposit

- Status of Censored text & Legal Deposit, State of censorship, Characteristics & Meaning of Censored text -

유 춘 동 (Yoo, Choon-Dong)**

◁ 목 차 ▷

- | | |
|---------------------|-------------------|
| 1. 서 론 | 4. 고소설의 검열 특징과 의미 |
| 2. 고소설의 검열본과 납본의 현황 | 5. 결 론 |
| 3. 고소설의 검열 실태 | <참고문헌> |

<초 록>

이 글은 고소설 검열본과 납본을 통해서 확인했던 검열본의 현황, 검열의 실태, 검열의 특징과 의미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살펴본 것이다. 고소설의 검열본은 형태적으로 한글 원고지에 내용을 작성하여 제출한 원고본(原稿本), 필사본(筆寫本), 한문 방각본(漢文坊刻本), 한글 방각본, 구활자본(舊活字本) 고소설로 나눌 수 있다.

고소설의 검열은 작품의 내용, 내용의 선정성, 표지의 선정성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고소설 역시 일제강점기에 검열의 대상이었지만 검열에서 지시받은 사항이 출간 과정에서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 이는 근/현대 문학, 잡지, 사회주의 서적과 견주어볼 때, 고소설 검열의 가장 큰 특징이다. 이처럼 고소설의 검열이 비교적 느슨히 적용되었기 때문에, 출판업자들은 고소설 출간에 집중하게 되었다. 그 결과 고소설의 독자는 늘어났고, 출판사는 호황을 맞게 되었으며, 여러 출판사에서 동일 작품을 중복 출판하는 일도 생겨났다.

학계에서는 그동안 고소설이 1910년대부터 1930년대까지 인기를 얻었던 이유에 대하여 여러 측면에서 논했다. 그러나 검열과 납본의 측면을 고려하여 논의하지 못했다. 이제 이러한 측면을 고려하여 연구할 필요가 있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내용과 연관지어 살펴보았다.

要語: 고소설, 검열본, 납본, 검열본의 현황, 검열의 실태, 검열의 특징

* 이 논문은 2016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6S1A5A8018866).

** 선문대학교 역사문화콘텐츠학과 조교수(sechaek@hanmail.net)

접수일: 2018년 8월 20일 최초심사일: 2018년 9월 11일 심사완료일: 2018년 9월 12일
서지학연구, 제75집, 179-192, 2018. [https://doi.org/10.17258/jib.2018.75.179]

<ABSTRACT>

This article examines the general status of the Censored texts, censorship status, censorship characteristics and meaning, which were confirmed through the Korean Old novel's Censored Edition and Napbon. The censored texts version of the Korean novel can be divided into manuscripts, woodblock-printed books written with chinese characters and Hangeul, old printed novel.

Korean Old novels were also censored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but the actual censorship did not reflect the instructions issued during the publication process. This can be said to be a feature of the old book censorship when compared with the modern/modern literature, magazines, and socialist books. As such, the novel was censored but relatively loose, so the publishers focused on publishing the novel. As a result,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the number of readers increased, and the publishing house was booming, resulting in duplication of the same works by different publishers.

In the meantime, academics have discussed the reason why the novel has become popular from the 1910s to the 1930s. But I could not discuss it in terms of censorship and Nap-bon. Now we need to approach this aspect.

Key words: Censored texts, Legal Deposit, Censorship status, Censorship characteristics

1. 서론

이 글은 그동안 고소설 검열본(檢閱本)과 납본(納本)¹⁾의 수집과 검토를 통해서 확인했던 고소설 검열본의 현황, 검열의 실태, 검열의 특징과 의미와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을 살펴보는데 목적을 둔다.²⁾ 학계에서는 일제강점기에 조선총독부(朝鮮總督府)의 사전/사후 검열을 받고 최종 허가(許可)를 받아 간행되었던 출판물을 ‘검열본’, 이후에 간행물을 다시 조선총독부에 제출했던 것을 ‘납본’이라 부르고 있다.³⁾

일제강점기에 실시된 검열본과 납본 제도는 식민지(植民地)를 경험했던 우리에게 이 시기의 사회 문화 전반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반드시 검토하고 생각해야 할 중요한 부분이다.⁴⁾ 이러한 인식은 2000년대 초반부터 시작되어 현재 역사학(歷史學), 사회학(社會學), 국문학의 근/현대문학(近/現代文學) 분야에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고문헌(古文獻)과 고전문학(古典文學) 분야는 이러한 경향과 견주어 본다면 상대적으로 검열본과 납본에 대한 연구가 미진한 상황이다. 특히 국문학사(國文學史)에서 일제강점기 검열과 납본의 여파로 생긴 신문학(新文學)의 변화와 제반 문제 등을 기술하며 검열과 관련된 문제를 연구에 포함시킬 것을 제기했고, 구활자본 고소설의 일부 작품을 대상으로 검열 이후의 변모의 과정을 다루었지만⁵⁾ 이 문제에 대한 자세한 연구는 지금까지 진행되지 못했다.

고소설은 신소설(新小說), 신문학과 마찬가지로 조선총독부의 경무국(警務局)과 학무국(學務局)의 검열 대상이었다. 따라서 조선총독부의 검열 지침에 의해서 검열을 받아야만 출판이 가능했고, 검열을 통과한 뒤에도 다시 출판물을 납본해야만 했다.⁶⁾

그러나 지금까지 이러한 고소설의 검열본과 납본이 얼마나 남아있는지, 실제 검열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신소설이나 신문학의 검열과 견주어 어떠한 특징이 있는지, 이 부분의 의미를 어떻게 부여할지에 대한 논의는 이루어지지 못했다.

1) 일제강점기 검열본과 납본의 자세한 개념은 한만수, 한기형의 논의 참조. 한만수, “일제 식민지시기 문학검열과 원본 확정,” 『대동문화연구』 51(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2005), 53-54.; 한기형, 『식민지 검열, 제도 텍스트 실천』(소명출판, 2011).

2) 유준동, “방각본 소설의 검열본과 납본에 대한 연구,” 『어문연구』 44(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16. 6), 7-22.; 유준동, “구활자본 고소설의 검열본과 납본,” 『서지학연구』 72(한국서지학회, 2017. 12), 363-375.

3) 검열본은 “작가의 원고 검열본, 교정쇄 검열본, 납본 검열본, 재검열본” 등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지만 이 글에서는 이를 묶어서 검열본이라고 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한만수(2005)의 논문 참조.

4) 정진석, 『극비 조선총독부의 언론검열과 탄압』(커뮤니케이션북스, 2007).; 한기형, 『식민지 검열, 제도 텍스트 실천』(소명출판, 2011).; 윤대석, 『식민지 문학을 읽다』(소명출판, 2012).; 한만수, 『허용된 불온: 식민지시기 검열과 한국문학』(소명출판, 2015).; 정근식·한기형·이혜령·고노 켄스케·고영란, 『검열의 제국: 문화의 통제와 재생산』(푸른역사, 2016).; 한기형, 『검열의 제국』(푸른역사, 2016).; 한기형, 『미친자의 칼 아래서』 1-2(소명출판, 2017).

5) 조동일, 『한국문학통사 5(제4판)』(지식산업사, 2013), 36-40.; 이주영, 『구활자본 고전소설 연구』(월인, 1998).; 권순궁, 『활자본 고소설의 편목과 지향』(보고사, 2000).

6) 유준동(2016), 7-9.

이 글에서 다룰 ‘고소설의 검열본과 납본’의 문제는 고소설의 유통(流通)이나 출판학적(出版學的)인 측면에서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일제강점기 식민지 조선 전반에 걸쳐 시행되었던 검열의 양상을 균형 있게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갖고 고소설 검열본의 현황, 검열의 실태, 검열의 특징과 의미에 대해서 논의하기로 한다.

2. 고소설의 검열본과 납본의 현황

일제강점기 조선에서 산출된 각종 출판물의 검열은 조선총독부의 경무국과 학무국에서 처리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검열과 관련된 업무를 지방의 해당 경찰서로 이관시키기도 하였지만 그 과정과 내용을 상위 기관이었던 조선총독부에 언제나 보고해야만 했기 때문에, 사실상 검열의 모든 과정은 조선총독부에서 주관하고 시행했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검열의 과정은 다음과 같이 진행되었다. 출판을 원하는 출판사에서는 출판 원고(原稿)를 제작하여 조선총독부의 도서관에 제출했다. 담당관은 이를 검수하고 검열 내용을 해당 출판사로 보내어 수정하게 한 뒤에 <사진 1>처럼 출판 허가 통보서를 보냈다. 그리고 출판사에서는 이를 반영하여 출간하였다. 이후 출판사에서는 책을 출간하고 출판물 2부를 조선총독부에 제출해야만 했다.⁷⁾



<사진 1> 조선총독부에서 검열 후, 출판 허가를 내린 통보서
(출처: 개인소장^⑦)

7) 홍효민은 검열제만 있었던 시기가 있고, 납본제가 시행된 시기가 있었다고 회고했다. 이와는 별도로 연구자들은 검열을 사전, 사후 검열로 구분하기도 한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구분 없이 일반적인 과정을 상정하여 기술했다. 홍효민, 『한국문단이면서: 문인들의 뒤안길』 (깊은샘, 1983), 13.

검열은 이러한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검열본이나 납본은 원고를 제출했던 해당 출판사와 저자, 조선총독부의 담당 기관에서만 소장하는 특수성을 갖고 있다. 따라서 현재 확인할 수 있는 검열본이나 납본의 소장 기관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필자가 확인한 검열본과 납본의 주요 소장처는 고려대 중앙도서관,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연세대 중앙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과 같은 대학 도서관이나 기관, 화봉문고 한 곳까지 모두 다섯 곳이다. 위의 기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검열본과 납본은 책 표지(表紙)에 조선총독부 검열 부서에서 찍은 “檢閱濟”, “出版許可”, “登錄番號”의 도장이 있기 때문에, 외형만 놓고 보더라도 검열본과 납본임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확인한 검열본과 납본의 현황은 아래와 같다.

<표 1> 주요 소장처 별 고소설의 검열본과 납본 현황

소장처	종수	형태		해당 작품
고려대 중앙도서관 한적실	11종	방각본	검열제(檢閱濟), 출판허가(出版許可)	적성의전, 제마무전, 신미록, 홍부전, 장풍운전, 심청전, 당 태종전, 김원전, 소대성전, 징 세비태록, 양산백전, 조웅전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1종	필사본	검열제(檢閱濟), 출판허가(出版許可)	삼국지
연세대 중앙도서관 국학자료실	1종	한글원고본 (원고지)	검열제(檢閱濟), 출판허가(出版許可)	금방울전
화봉문고	1종	구활자본	납본	유충렬전
국립중앙도서관	60종	방각본	검열제(檢閱濟), 출판허가(出版許可), 납본	구운몽 외
	650종	구활자본	검열제(檢閱濟), 출판허가(出版許可), 납본	구운몽, 노처녀 고독각시 외
-	724종	-		

<표 1>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현재 확인할 수 있는 고소설의 검열본과 납본은 모두 724종이다. 검열의 전(全) 과정에서 생긴 자료는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검열을 위해 제출했던 원본(原本) 1부, 검열을 통과한 뒤에 제출했던 납본 2부까지 총 3부였다. 그리고 이 자료는 모두 조선총독부에서 보관하고 있었다. 하지만 소장기관의 자료들을 보면 3부 모두를 보관하고 있는 기관은 드물고, 검열본 원본, 납본 중의 하나로만 소장하고 있는 곳이 많다.

검열본의 원본과 납본은 형태상 한글 원고지의 원고본, 필사본, 방각본, 구활자본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리고 ‘檢閱濟’, ‘出版許可’라는 도장이 찍힌 검열본(원고본), 검열을 통과한 뒤에 출간하여 조선총독부에 제출한 것으로도 분류해 볼 수 있다.



<사진 2> 검열본의 모습(필사본: 삼국지, 방각본: 구운몽, 구활자본: 창선감의록)
(출처: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국립중앙도서관©)

현재까지 확인한 바로는 한글 원고지의 원고본은 연세대학교 국학자료실에서 소장하고 있는 『금방울전』 한 종뿐이다. 필사본은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에 있는 『삼국지』 한 종이 있고, 고려대학교 중앙도서관 한적실의 경우 방각본 검열본을 소장하고 있다. 그리고 국립중앙도서관의 경우에는 방각본과 구활자본 검열본을 소장하고 있다. 고소설의 검열본과 납본은 근/현대문학 자료와 비교해 볼 때, 방각본이나 구활자본이 많고 연세대학교 국학자료실에 있는 『금방울전』과 같은 한글 원고지에 작성된 원고본은 거의 찾아보기가 어려운 특징이 있다.

지금까지 확인한 기관 중에서 검열본과 납본을 가장 많이 소장하고 있는 기관은 국립중앙도서관이다. 국립중앙도서관에는 총 710종의 검열본과 납본을 소장하고 있다. 이처럼 국립중앙도서관에 이 자료들이 많은 이유는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에서 검열 관련 자료나 납본이 많아지면서, 이 자료들을 “보관전환(保管轉換)”이라는 명목으로 당시 조선 총독부 도서관으로 이관했고, 해방을 맞이하면서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이를 인수하여 지금까지 소장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국립중앙도서관에는 방각본 60종, 구활자본 650종까지 총 710종의 검열본과 납본을 소장하고 있다. 그러나 한글 원고지에 작성된 형태의 원고본(原稿本)은 찾아보기가 어렵다. 그러나 현재 남아 있는 것은 710종이지만 조선총독부에서 간행했던 검열 사항 관련 자료, 예를 들어 총독부의 경무국과 학무국에서 기재해 놓은 일련번호를 보면 훨씬 더 많은 검열본과 납본 자료가 이곳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정황을 본다면 국립중앙도서관에는 지금보다 더 많은 검열본과 납본이 있었고, 한글 원고지로 작성된 형태의 원고본도 존재했을 것으로 보인다.⁸⁾

8) 유춘동, “구활자본 고소설의 검열본과 납본,” 『서지학연구』 72(한국서지학회, 2017), 370-371.

3. 고소설의 검열 실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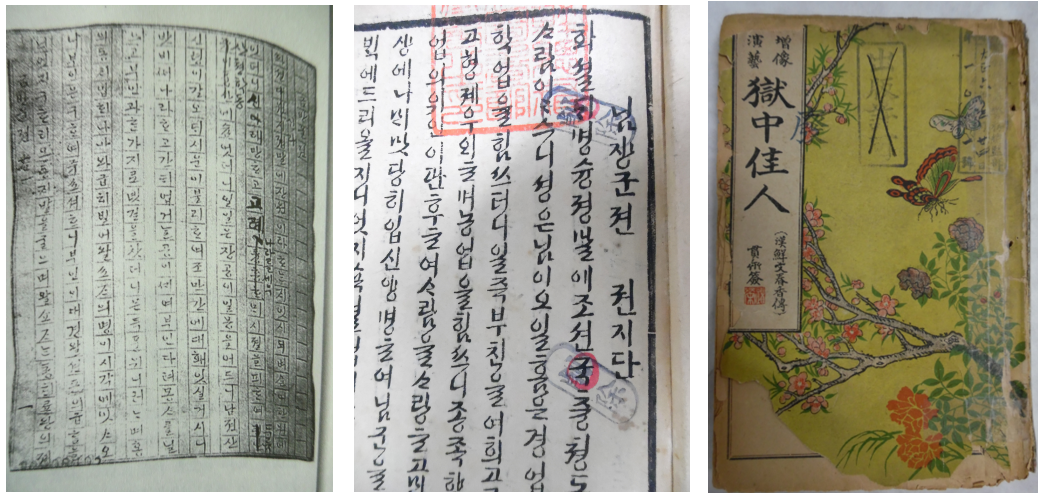
고소설 검열의 실태는 앞서 제시한 <표 1>의 자료를 통해서 확인된다. 먼저 한글 원고지에 내용을 작성하여 제출한 『금방울전』의 검열본을 살펴본다. 이 자료를 보면 단어에서 중국의 지명(地名), 내용에서 중국의 역사 등을 조선(朝鮮)이나 조선과 관련된 내용으로 바꾸거나, 어색한 내용이나 독자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 등을 쉬운 표현으로 고치라는 검열 지시를 받았다.⁹⁾ 하지만 이외에 다른 검열 지적은 없다.

한글 필사본으로 된 『삼국지』 검열본을 보면 검열 과정에서 아무런 지적을 받지 않았음을 볼 수 있다. 이 자료는 한글 원고지의 『금방울전』의 검열본과 검열의 양상에서 차이를 보인다. 『삼국지』는 중국소설 『삼국지연의』의 번역본으로, 유비, 관우, 장비를 주인공으로 하면서 주요 내용이 전개된다. 따라서 내용의 대부분은 중국의 역사(歷史), 인물(人物), 지명(地名)과 연계되어 있다. 하지만 한글 필사본 『삼국지』 검열본을 보면 이러한 내용을 고치라는 지적 없이 검열에 통과했고, ‘檢閱濟’, ‘出版許可’를 받았던 상황을 볼 수 있다. 원작(原作)이고 검열을 시행했을 경우 생기는 여러 문제 등을 고려하여 『금방울전』의 검열본과는 다른 양상으로 검열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방각본 고소설의 경우, 한문 방각본 소설과 한글 방각본 소설에서 차이를 보인다. 한문 방각본 소설의 검열본은 몇 종이 있다. 이 중에서 대정(大正) 5년(1916) 5월에 제출된 『구운몽』을 보면 표지에 ‘檢閱濟’, ‘出版許可’라는 도장이 찍혀있어서 검열에 무사히 통과했음을 알 수 있다. 한문 방각본 『구운몽』도 한글 필사본 『삼국지』처럼 검열 과정에서 별다른 교정 지시 사항이 없었다. 『구운몽』의 내용은 중국을 배경으로 하고 있으며, 사실상 중국의 역사, 고사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그러나 『구운몽』 또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검열 과정에서 지적을 받지 않았다. 이는 한문 구원자본 고소설인 『구운몽』, 『창선감의록』, 『친군연의』도 마찬가지였다. ‘한문(漢文)’으로 표기되었다는 점, 원작이 분명하다는 점에서 검열을 피했던 것으로 보인다. 한문소설의 경우, 매체나 내용에 상관 없이 검열에 쉽게 통과할 수 있었고 자유롭게 출판되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반면에 한글 방각본 소설은 한문 방각본 소설과는 다른 양상이 보인다. 국립중앙도서관과 고려대 중앙도서관 한적실에 있는 한글 방각본 소설을 보면 한글 원고지의 『금방울전』의 검열본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사진 3>과 같이 ‘대명’, ‘조선국’의 ‘국’의 단어에다가 ‘削除’의 도장을 찍어놓았고, 조선과 관련된 내용이거나 조선의 민족성을 드러내는 부분마다 ‘削除’의 도장을 찍거나 빨간 펜으로 해당 부분의 수정 표시를 해놓았다.

9) 이윤석, “금방울전 활판본 원고에 대하여,” 『열상고전연구』 26(열상고전연구회, 2007), 387-389.



<사진 3> 한글 원고지 검열본, 한글 방각본 소설의 검열 양상(『금방울전』, 『임장군전』, 『옥중가인』)
(출처: 연세대 국학자료실, 국립중앙도서관©)

그리고 한글 방각본 소설 『조웅전』에서는 다른 양상을 더 볼 수 있다. 한글 방각본 소설 『조웅전』은 이본(異本)이 많다. 그 중에서 서계서포(西溪書舖)에서 간행된 『조웅전』은 권1 마지막 장에 ‘大韓 隆熙’라는 간기(刊記)가 새겨져 있다.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지만 다른 곳에서 출간한 한글 방각본 소설 『조웅전』은 모두 검열을 피했다. 그러나 서계서포본은 검열 과정에서 지적을 받게 되었다. 그 이유는 서계서포본에 있는 ‘大韓 隆熙’라는 단어 때문이었다. 일본으로 조선의 국권(國權)이 넘어간 시점에서 ‘융희(隆熙)’라는 단어는 문제가 되었다. 따라서 검열 과정에서 이 문제를 지적 당했고, 서계서포에서는 간기 부분을 없앤 원고본을 제출해야만 했다.

그러나 71종의 한글 방각본 소설 검열본에서 이러한 지적을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임장군전』에서 지적을 받았던 ‘대명’이라는 단어는 고소설 시작 부분에 항상 등장하는 상투어이다. 『임장군전』을 제외한 다른 검열본에서는 ‘대명’이 등장해도 별다른 지적 사항이나 수정 요구를 받지 않았다. 이런 상황을 종합해 본다면 한글 방각본 소설의 검열은 모든 책을 검열했던 것이 아니었고 특정 작품을 검열관이 임의로 선택해서 검열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특정 출판사에서 제출한 한글 방각본 소설의 검열본에서도 볼 수 있다. 한남서림, 서계서포 등의 출판사에서는 검열을 위해서 10여 종 이상의 한글 방각본 소설을 제출했다. 그러나 검열본을 보면 모든 자료를 일일이 검열하지 않았다. 이런 점을 본다면 한글 방각본 소설은 전수(全數)를 검토했던 것이 아니라 선별적으로 이루어졌던 것이 분명해 보인다. 이처럼 선별적인 검열을 했던 것은 그만큼 한글 방각본 소설의 경우 검열자가 크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던 것에서 온 것으로 보인다.



<사진 4> 구활자본 고소설의 검열 양상(『용매기연』, 『유충렬전』 등)
(출처: 국립중앙도서관, 화봉문고©)

구활자본 고소설은 앞서 살펴본 검열본들과 비교해보면 몇 가지 사항이 검열의 과정에서 추가되었다. 작품 내용의 검열은 앞선 자료들과 큰 차이가 없지만 작품의 표지, 판권지의 기재 사항 등을 검열의 대상으로 삼은 것이 구활자본 고소설 검열본만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650종의 구활자본 고소설 중에서 작품 내용을 검열한 사례는 『춘향전』의 이본인 『옥중가인』과 『진대방전』만이 확인된다. 『옥중가인』은 방자와 춘향과의 음란한 대화 부분, 이도령과 춘향의 초야(初夜) 부분처럼 외설적인 부분에다가 수정 표시를 해 놓았다. 반면에 『진대방전』은 간행본 전체에다가 빨간 볼펜으로 × 표시를 해두었다. 이 부분은 작품의 주제 중의 하나인 충효(忠孝)와 연관된 것이다. 『진대방전』의 검열본은 몇 종이 더 있는데 이 부분이 문제가 있었다면 검열 대상이었던 『진대방전』 모두 해당 부분에서 동일한 표시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검열 내용은 한 종의 『진대방전』에서만 볼 수 있다. 따라서 부적절한 내용으로 인한 검열 판정보다는 다른 이유로 수정 사항이 반영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주목할 것은 구활자본 고소설의 검열 대상에 작품의 표지가 포함되었다는 점이다. 대정(大正) 연간 초에 발행된 『금방울진』의 표지를 보면 <사진 5>처럼 소설의 내용을 상단과 하단으로 나뉘어 위에는 나체(裸體)를 한 주인공의 모습, 아래에는 도깨비가 주인공을 업고 어디로 가는 모습으로 표현했다.

당시 검열관은 원 표지에서 상단 부분에 실린 나체 사진의 문제를 지적했다. 나체 상태의 사람을 나무에다가 묶어 놓은 것이 선정적이면서 풍속 교화에 문제가 있으니 삭제하라고 한 것이다. 구활자본 고소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보다 표지였다. 표지의 문제를 검열 과정에서 지적함으로써

풍속 교화의 문제 등을 시정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¹⁰⁾ 이후 다시 제출한 『금방울전』의 검열 제출본에서는 이 장면이 없어지고 하단 부분에 도깨비가 주인공을 업고 가는 것으로 바뀌었는데, 이렇게 표지가 변한 이유는 검열 때문이었다.



<사진 5> 금방울전의 표지 검열본
(출처: 국립중앙도서관©)



<사진 6> 검열 이후의 금방울전 표지의 모습
(출처: 개인소장©)

그동안 구활자본 고소설의 표지를 놓고 여러 연구가 있었지만 이처럼 작품의 표지가 바뀐 이유, 바뀐 전후의 모습은 논의되지 못했다. 『금방울전』의 표지 검열의 사례를 통해서, 검열로 인하여 표지가 변했고, 표지를 중요한 검열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을 새롭게 알 수 있다.

아울러 구활자본 고소설의 검열에서 판권지 또한 검열의 대상에 포함되었다. 일반적으로 판권지는 검열을 마치고 조선총독부의 허가가 내려진 뒤에, 판권지에다가 허가 일을 기재하고 출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사진 4>를 보면 출판업자가 미리 판권지를 만들어 놓았고, 인쇄일이나 발행일 등은 검열 기간을 짐작하여 반영한 상황에서 검열에 통과하면 그대로 발행했던 상황을 볼 수 있다. 이는 홍효민의 증언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홍효민은 “(전략) 도서관의 검열계에서는 이것을 받아 가지고 사상적인 것은 마음대로 시일을 끌었다. 잡지란 그 달에 또박또박 나와야 하는 것이언마는 검열 관계로 시일이 늦어지니, 할 수 없이 잡지사에서는 원고를 두 벌 작성하여 한 벌은 검열을 보내고 한 벌은 인쇄에 붙이는 일이 많았다고 했다.”¹¹⁾라고 잡지 검열에의 과정을 회고한 적이

10) 유춘동(2017), 372-373.

11) 홍효민(1983), 13.

있다. 이러한 홍효민의 회고, 당대 출판물 간행을 참조한다면 구활자본 발행 업자들은 미리 판권지를 만들어 놓고 이를 검열본으로 제출했으며, 검열을 통과하면 판권지의 내용과는 무관하게 출간했던 것으로 여겨진다.

필자는 선행 연구에서 “구활자본 고소설책은 검열을 마친 날짜와 판권지에 기재된 발행일이 적게는 2~3일, 길게는 1주일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것도 있고, 검열과 동시에 곧바로 출판된 것을 볼 수 있다”고 했고 이에 대한 이유를 밝히지 못했다.¹²⁾ 이 문제는 사전에 판권지를 부착하여 검열을 받았고, 검열에 통과한 경우에는 책을 그대로 출간했고, 만약 여의치 않으면 날짜를 재조정하여 간행된 것에서 비롯된 문제였다.

4. 고소설의 검열 특징과 의미

앞서 고소설의 검열본을 1) 한글 원고지에 내용을 작성하여 제출한 원고본, 2) 필사본, 3) 한문 방각본, 4) 한글 방각본, 5) 구활자본 고소설, 다섯으로 구분하여 검열의 양상을 살펴보았다.

검열을 통해서 고소설 출판업자가 받은 지적은 중국의 지명, 중국의 역사, 내용의 선정성, 표지의 선정성 등이다. 그리고 검열은 출판업자가 출판을 위해 제출한 모든 고소설 작품을 검열을 진행하지 않았다. 검열관이 보기에 중요하거나 유명한 작품만 따로 골라서 검열을 실시했던 모습을 볼 수 있다.

문제는 이러한 지적을 받은 뒤에 출판업자가 검열의 사항을 모두 반영해서 출간했는가 하는 것이다. 한글 원고지에 작성하여 제출한 『금방울전』, 한글 방각본 『임경업전』과 『조웅전』의 검열본을 보면 검열에서는 단어, 내용 지적을 수정하라고 했지만 실제 출간본에서는 이러한 검열의 정황을 볼 수가 없다. 이는 신소설의 검열과 대조해 볼 때, 고소설 검열에서만 볼 수 있는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즉 고소설 또한 검열의 대상이었으나 검열은 이루어졌지만 근/현대문학, 잡지(雜誌), 사회주의 서적과는 달리 검열이 훨씬 수월했고, 지적 사항 역시 출판물에는 반영하지 않아도 되는 검열의 사각지대였다. 1910년대 이후 검열이 본격화되고 작동되면서 근/현대문학, 잡지, 사회주의 서적에서는 일명 ‘벽돌 글자’에서부터 간행본이 회수되는 상황이 벌어지지만 고소설은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그만큼 고소설의 경우, 검열자가 내용을 알고 검열에서 민감하게 반영하지 않았던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문학 작품의 서로 다른 검열 과정과 결과는 결국 구활자본 고소설의 대량 간행으로 이어졌다. 그 결과 고소설은 일제강점기에 독자들이 늘어나게 되었고, 출판사는 호황을 맞이하여 동일 작품이 계속 출간되는 상황을 초래하게 된 것이다.

12) 유춘동(2017), 371.

5. 결 론

이 글에서는 그동안 수집과 검토를 마친 고소설 검열본과 납본 724종을 대상으로, 검열본의 현황, 검열의 실태, 검열의 특징과 의미 등을 살펴보았다. 앞에서 논의한 내용을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다.

고소설 검열본은 형태적으로 한글 원고지에 작성된 원고본, 필사본, 한문 방각본, 한글 방각본, 구활자본 고소설로 나뉜다. 한문 방각본은 검열의 큰 영향을 받지 않았다. 하지만 다른 것들은 검열의 양상에서 차이가 있다. 한글 원고지에 작성된 『금방울전』의 검열본은 중국의 지명이나 역사적 사실 등이 등장할 경우 조선이나 조선과 관련된 내용으로 바꾸도록 검열 지시를 받았다.

한글 방각본 소설은 검열을 통해서 조선과 관련된 내용, 조선의 민족성을 드러내는 부분에서 수정을 지시받았다. 그리고 구활자본 고소설의 경우에는 작품 내용의 검열과 함께 작품의 표지, 관련지의 기재 등에 초점을 두어 검열이 이루어졌다.

고소설은 조선총독부의 검열의 대상이었으나 신소설이나 신문학과 대조해보면 검열에서 차이가 있었다. 고소설은 모든 자료를 전수(全數) 조사 방식을 택하여 검열받지 않았고 선별적인 검열을 시행했다. 심지어 검열에서 지시받은 사항을 출간하면서 고치지 않고 간행도 했다. 이는 조선총독부의 검열 정책에서 고소설을 신소설, 신문학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위협적인 존재로 여기지 않았기 때문이다.

1910년대 이후 조선총독부의 검열이 심해지는 과정에서 고소설은 이러한 예외적인 대상이었기 때문에 신소설, 신문학을 출판하는 출판사에서는 고소설 출간으로 시선을 돌리고 경쟁적으로 출판사마다 고소설을 출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검열의 예외로 고소설은 고소설의 유통 측면에서 독자의 확대를 가져왔고, 이로 인해 고소설의 대 호황(好況)을 누릴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학계에서는 1910년대부터 1930년대까지 고소설이 인기를 얻은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논의해 왔다. 그러나 검열과 납본을 연관 지어 설명하지는 못했다. 이제 이러한 측면을 주목하여 연구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고려대 중앙도서관 한적실, 연세대 중앙도서관 국학자료실, 국립중앙도서관 고문헌과, 화봉문고 소장 검열본, 납본 724종.

권순금. 『활자본 고소설의 편폭과 지향』. 보고서, 2000.

김성철. “육당문고 소장 조선광문회본 고소설에서 드러나는 초창기 검열 양상과 검열 우회의 징후.” 『고전과 해석』(2014). 7-28.

유춘동. “방각본 소설의 검열본과 납본에 대한 연구.” 『어문연구』 44(2016). 7-22.

유춘동. “구활자본 고소설의 검열본과 납본.” 『서지학연구』 72(2017). 363-375.

유춘동. “일본 쓰쿠바 대학의 조선 관련 서적과 오카쿠라 요시사부로(岡倉由三郎)의 장서.” 『동양학』 69(2017). 1-12.

이윤석. “금방울진 활판본 원고에 대하여.” 『열상고전연구』 26(2007). 373-402.

이주영. 『구활자본 고전소설 연구』. 월인, 1998.

장 신. “1920년대 조선의 언론출판관계법 개정 논의와 조선출판물령.” 『한국문화』 47(2009). 261-282.

정근식 · 한기형 · 이해령 · 고노 켄스케 · 고영란. 『검열의 제국』. 푸른역사, 2016.

정진석. 『극비 조선총독부의 언론검열과 탄압』. 커뮤니케이션북스, 2007.

조동일. 『한국문학통사 5(제4판)』. 지식산업사, 2013. 36-40.

한기형. 『미친자의 칼 아래서』 1-2. 소명출판, 2017.

한기형. 『식민지 검열, 제도 텍스트 실천』. 소명출판, 2011.

한만수. 『잠시 검열이 있겠습니다』. 개마고원, 2012.

한만수. 『허용된 불온: 식민지시기 검열과 한국문학』. 소명출판, 2015.

홍효민. 『한국문단이면서: 문인들의 뒤편길』. 깊은샘, 1983.

